



기관 순매도에 하락 마감

기관, 코스피·코스닥 동시 순매도

美 밴스 부통령, 이란과의 후속 협상 위한 스위스 방문 연기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9,052.42pt (-0.13%)	966.59pt (-3.43%)	1,459.48pt (+0.02%)
달러-원 환율	韓 10년물 국채 금리	S&P500 선물
1,525.60 원 (-14.4 원)	4.1750% (+5.7bp)	7,544.75pt (-0.34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+16,490 억	+770 억	-1,263 억
외국인	-3,492 억	+4,875 억	+14,766 억
기관	-12,283 억	-5,840 억	-12,787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기관 수급 이탈에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장 초반 3%대 강세를 보이다 하락 전환했고, 코스닥도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.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보였고, 장 막판 외국인 또한 코스피에서 순매도로 반전했습니다. 미국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핵 관련 후속 협상을 위한 스위스 방문 일정을 연기한 점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자극하는 요인이었습니다. 이날 KOSPI는 0.13%, KOSDAQ은 3.43% 내렸습니다. KOSPI 거래대금은 약 65.3조원, KOSDAQ은 약 10.7조원을 기록했습니다.(KRX 기준)
- 외국인은 KOSPI에서 3천억원 순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. 외국인은 KOSPI에서 운송장비/부품과 기계/장비 업종을 매수했고, 전기/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기관은 KOSPI를 약 1.2조원 순매도했습니다. 기관은 금융 및 보험 업종을 매수했고, 기계/장비와 운송장비/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
-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, 美 ADR 상장 기대감에 SK하이닉스가 상승했고, SK스퀘어와 SK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. MLCC 및 기판 공급 부족 전망에 삼성전기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. 전력기기, 조선, 자동차 업종도 반등했습니다. 반면, 반도체 소부장, 방산, 소비주 등이 하락했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LS ELECTRIC(+7.02%), 현대글로비스(+4.95%), SK하이닉스(+2.94%)가 올랐고, 주성엔지니어링(-9.13%), LG전자(-7.44%), 한화에어로스페이스(-5.63%)가 내렸습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